

서울대 “시흥캠퍼스 지역과 함께 성장”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터 조성

경기도·시흥시·서울대치과병원
서울대병원과 상호협력 등 MOU

뇌인지바이오횡화센터 중심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 추진



경기도와 시흥시, 서울대가 14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임병택 시흥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세정 서울대 총장, 구영 서울대치과병원장. /연합뉴스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 클러스터로 조성될 전망이다. 서울대는 시흥캠퍼스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협력 사업 개발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과 지난 14일 ‘상호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시흥시 서해안로 405 일원 66만2009㎡에 총 사업비 1조8000억원 규모로 2025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된다. 1단계에서 한라건설을 포함한 특수목적법인(SPC) 주관으로 41만1492㎡에 숙소·교육동·미래모빌리티센터 등 행정·연구 건물 조성이 올해 말 완료 예정이다. 2단계는 시흥시·서울대·시흥SNU홀딩스 주관으로 25만517㎡에 의료바이오 연구개발(R&D)센터와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이 건립된다.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은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뇌인지바이오횡화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2월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포함된 시흥 배곧지구

(면적 0.88㎢)를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오는 6월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세정 서울대 총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임병택 시흥시장,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구영 서울대치과병원장이 참석했다. 서울대는 그동안 시흥캠퍼스 설립을 위해 교육, 연구, 지역사회 공헌 등에 관해 경기도, 시흥시와 협의해 왔다. 이번 협약에는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이 포함되면서 의료와 복지 등 협력의 범위와 분야가 한층 다각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과거 교육과 연구에 방점을 뒀던 것과 달리 현재의 대학은 보다 다채롭고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며 “협약을

통해 서울대의 역할을 되새기고 지역과의 상생, 관계기관과 협력해 한걸음씩 전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올 한해에도 상호간 더 많은 교류와 논의, 협력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에 앞서 서울대 시흥캠퍼스 추진본부 오현석 부분부장은 시흥캠퍼스의 향후 조성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서울대가 시흥캠퍼스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밝혔다. 서울대는 시흥캠퍼스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세계최초 육해공 무인인동체 테스트베드 구축하고, 대규모 사이언스 파크와 글로벌 창업단지 조성 등도 추진 중이다. 서울대 등은 협약을 통해 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와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 클러스터 조성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배상민 KAIST 교수, ‘iF 어워드’서 수상

오리온 ‘제주용암수’ 생수병 디자인



KAIST는 산업디자인학과 배상민 교수(사진) 연구팀이 ‘제주용암수’ 생수병 디자인으로 세계 최고권위 디자인 대회인 2020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패키지 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독일 하노버전시센터에서 주관하는 iF 디자인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 대회 중 하나로, 60개국 7000점 이상의 작품이 출품된다. 배 교수 연구팀은 생수병 디자인을 발표해 패키지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을 받았다.

수상작 ‘제주용암수 디자인’은 ㈜오리온 제주 용암수와 KAIST와의 산학 협력으로 이루어진 프리미엄 미네랄 생수 디자인 프로젝트로 탄생했다.

배 교수팀이 디자인한 생수병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모티브로 주상절리와 바다의 수평선을 형상화한 세로 선과 가로선을 활용해 단순하면서도 감각적인 디자인을 완성했다.

나아가 이러한 병의 형태는 획기적으로 적은 양의 재료를 사용함에도, 일반적인 형태의 플라스틱병에 비해 약 4

배 정도의 고압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심미적 영역뿐 아니라 기능적 영역에서도 뛰어난 우수성을 보인다.

병 라벨에는 물을 통해 투과돼 보이는 신비로운 한라산과 밤하늘에 빛나는 오리온 별자리를 담아 제주 한라산의 낮과 밤을 감성적으로 그려냄과 동시에 ㈜오리온의 브랜드를 상징화했다.

배 교수는 “먼저 학생들과 산학 프로젝트로 연구한 결과물을 상품화해 대량생산되고 그 결과가 국제적 디자인 대회에서 인정받아 기쁘다”라며 제조 및 유통 공정상 디자인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었지만 구조 및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고안과 외형의 아름다움까지 표현하려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글 읽고 쓰기 못하던’ 만학도 893명 초·중 학력 인정

서울시교육청 문해교육 이수 인정
97% 장·노년층 ... 최고령자 91세

“나는 ‘공부하고 싶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달이면 졸업장을 받지만 이제 시작이다.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나는 공부할 것이다”(1942년생 안영순 씨)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글자를 읽고 쓰기 어려웠던 성인 893명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장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 학년도 초·중·고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893명에게 학력인정

서를 배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초·중 학력인정 문해교육은 글자를 읽고 쓰기 못하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취득 기회와 생활문제 능력을 갖추도록 서울시교육청이 2011년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도입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까지 4710명이 졸업했고, 올해는 초등 660명, 중학 233명 등 총 893명이 학력인정서를 받는다.

졸업장을 받는 이수자는 91세 최고령 황현주(1930년생, 만91세) 씨를 포함해 60대 36%, 70~80대 54% 등 50~80대 장·노년층이 97%에 달한다. 황

씨는 고령임에도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해 우수학습자 교육감 표창장을 받는다.

아쉽게도 이들의 졸업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에게 교육감 축하 인사가 담긴 카드와 축하 영상을 각 문해교육 기관에 배부해 축하를 전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내 2881명이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올해 초·중·고 75곳을 지정해 성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졸업이다’ 삼육대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학위수여식 공식 행사를 취소하고, 13~14일 학과 사무실을 통해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학위증을 배부했다고 밝혔다.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던지며 졸업을 자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자체-대학, 1080억 ‘지역혁신’ 머리 맞대

지역혁신 사업 권역별 간담회 진행
오늘 공주대서 첫 충청권 간담회

교육부가 지자체와 대학, 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 지역의 교육과 취업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기본계획 확정에 앞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권역별 간담회가 17일부터 진행된다.

첫 간담회는 이날 충남 공주대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의 시도지사와 교육감, 지역대학 총장, 지역 협업기관장(기업 CEO, 상공회의소·창조경제혁신센터·테크노파크 원장 등)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후 대구·경북·강원 권역(2.20.), 부산·울산·경남 권역(2.24.), 광주·전북·전남·제주 권역(2.27.) 순으로 진행 예정이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는 올해 1080억원의 국고가 지원

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국고로 70%를 지원하고 지역이 30%를 대응 투자한다. 올해 3개 플랫폼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별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 혁신 의견 등을 수렴해 사업의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간담회에 참석하는 충청권 4개 시도 소재 대학 총장들과 별도 자리를 마련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계획과 대학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한다. 특히 개강을 맞아 국내 입국하는 유학생들이 2월 3주와 4주 사이 집중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학들에 만일의 위급상황에 대비한 ‘지자체-대학-지역의료기관’ 직통 회선 구축 등 중국 경우 유학생 지원 방안 등도 논의한다. /한용수 기자

서울예술대 멀티미디어 융합퍼포먼스 ‘체인징 타이즈’ 성료

서울예술대학교는 2019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Art & Digital Tech’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멀티미디어 융합퍼포먼스 ‘체인징 타이즈’가 지난 14일 남산예술센터에서 성료됐다고 밝혔다.

서울예술대 예술창조센터가 주관한 이번 작품은 한국과 미국이란 서울 다른 시공간에서 동시에 펼쳐지는 지구를 위한 일종의 진혼곡이다. 또 죽은자의 넋을 기리며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 윤희와 환생, 생명의 순환을 기원하는

‘생명 굿’이기도 하다. 텔레마틱 기술을 통해 서로 다른 시공간 제약을 뛰어넘으며 죽은 자의 영혼을 기리는 이번 작품은 죽음을 앞둔 자의 생명을 기원하는 산진오귀국 형태로 진행됐다.

체인징 타이즈는 2016년 1월 실시된 서울예술대 컬처허브와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디에고 예술가들의 몰입형 텔레마틱 콘서트를 기반으로 VR(가상현실), 5G 등을 활용해 더 혁신적인 텔레마틱 음악 공연을 선보이고자 기획됐다. /한용수 기자



서울예술대 멀티미디어 융합퍼포먼스 ‘체인징 타이즈’ 공연 모습. /서울예술대학교